

‘도시농부’ 증가에 자치구 운영 텃밭 인기 ‘쑥쑥’

“타인 접촉 줄이며 취미 즐기고 아이들 교육에도 안정맞춤” 광주 자치구, 개인농지 등 3평 남짓 연 3만원부터 무료 제공 동·남·광산구 이달 말 분양...동구, 기존 경작자 우선권 폐지

광주 도심에서 나만의 텃밭을 가꾸고 싶어하는 ‘도시농부’가 증가하면서 광주 5개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영텃밭도 인기 ‘상한가’를 치고 있다. 특히 광주 동·남·광산구청에서 운영 중인 공영 도시텃밭이 이달 말 분양에 들어가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이달 말부터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영텃밭 분양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동구청은 내남동(사진)과 용연동 일대에 조성된 공영텃밭 4곳 169구획을 분양한다. 남구청은 덕남동과 양과동 2곳을 더해 342구획을 분양하며, 광산구청은 하산동에 있는 공영텃밭 133구획을 분양할 계획이다. 각 구획은 3-5평 크기이며 1가구당 1구획만 분양받을 수 있고, 분양후에는 4월부터 12월 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구청의 경우 양동·풍암동 공영 도시텃밭 200

구획을 인기리에 운영해 왔으나, 부지가 중앙근린공원 사업부지에 편입되면서 지난해를 끝으로 모두 운영 종료했다. 대신 서구청은 올해 덕흥동에 공영 텃밭 50구획을 신규 개설하고 오는 6월부터 추첨식으로 분양한다.

각 구청 도시텃밭 담당자는 도시텃밭 인기가 갈수록 급상승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이후 ‘텃밭 가꾸기’가 타인과 접촉을 줄이면서 즐길 수 있는 취미이자 아이들 교육에도 좋다는 사실이 퍼지면서다. 연 3만원을 내거나 무료로 3-5평짜리 공간을 1년 동안 빌려 자유롭게 작물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인기의 원인을 보았다.

남구청은 지난 2017년부터 덕남동 공영텃밭 문을 열었으나, 3년 동안 분양률이 60-80%에 그치는 등 호응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지난해에는 공모 시작 10분만



에 342구획이 모두 선착순 마감됐다.

광산구청 또한 지난해 하산동 공영텃밭 133구획을 공모한지 1시간도 안 돼 선착순 마감됐으며, 동구청은 지난해 주말농장 수분양자 169명을 뽑는데 227명이 몰려 경쟁이 치열했다고 설명했다.

높아지는 인기에 힘입어 자치구들은 한정된 텃밭 공간을 늘려야 한다는 속제도 안았다.

현재 각 구청의 공영텃밭은 모두 개인 농지와 사유지 등을 임차한 것이다. 또 공영텃밭을 운영하려면 주차장과 농업용수를 끌어올 관정 등 인프라도 설치해야 하는 터라 새로운 부지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남구청은 공영텃밭을 늘리고 싶어도 유휴지를 모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덕남동 공영텃밭은 그나마 사유지를 빌려 쓰고 있어 사정이 낮지만, 양과동 공영텃밭의 경우 한 해 임차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2020년 1만 400㎡→2021년 7102㎡→2022년 8510㎡ 등으로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동구청은 아예 내남동·용연동 일대에 ‘도시농업 복합단지’를 조성했으나, 이 중 텃밭으로 분양하는 4923㎡ 부지를 모두 5년 단위로 개인에게서 임차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부지를 매입해 편의 시설을 늘리고 인프라를 설치해 보려 했지만, 토지 소유주의 매도 의사가 없어 설득이 늦어지고 있다고 동구청 관계자는 전했다. 동구청은 일단 올해 내남동 일대 20구획 텃밭을 추가로 임차해 오는 7월부터 분양할 계획이다. 또 부지 임대인을 지속 설득해 부지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신규 분양 신청자도 차별받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기존 경작자 우선권을 폐지하고 추첨제로 분양자를 모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완연한 봄인가 했더니... 일요일 비 온 뒤 꽃샘 추위

주말인 11일까지 따뜻한 봄 날씨를 유지하다 12일부터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토요일인 11일까지 포근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올라 일부 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광주의 경우 10일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올해 일 최고기온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2-6도기랑 떨어져 5도 내외로 예상돼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12일부터는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를 지닌 기압골이 지나면서 지상에 저기압을 발달시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5-20mm로 예상된다.

비가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서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도 10-15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데다, 비가 오며 기온이 떨어져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화순군, 양한묵 선생 묘 이장...집중 관리

도곡면 이장 추진

호남 유일 ‘민족대표 33인’ 양한묵 선생 묘소가 관리 사각지대에 들어 훼손된 채 방치됐다는 비판(광주일보 3월 2일자 1면)에 따라 화순군이 묘를 화순군 도곡면의 야산으로 이장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화순군 화순읍 영남리 영무산에 있는 양 선생 묘를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산 67번지로 이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장 위치는 화순 도곡중앙초등학교 뒷산으로, 이곳은 인근 마을과 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은 데다 화순 고인돌공원과 접해 있어 참배객들이 찾아오기 편하고 제주 양씨 문중이 묘를 관리하기도 용이하다고 화순군은 설명했다.

화순군은 문중과 이장 협의를 마치고 부지 매입 절차에 들어갔는데, 부지 소유자인 전남도교육청 측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예산과 이장 일정은 부지 감정평가를 거친 뒤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화순군이 추가경

정예산을 받아 비용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당초 양 선생 묘소를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묘 자체를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전남도는 이장 이후 문중-국가보훈처 등과 협력해 양 선생을 기리는 추가 비석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공적을 적은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의 자랑인 양한묵 선생의 묘가 더 이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장 이후에도 많은 참배객들이 찾아와 양 선생을 기릴 수 있도록 꾸준히 현장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양 선생은 1919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이후 서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모진 고문을 받다 옥사했다. 유해는 서울 수철리(현 성동구 금호동) 공동묘지에 안장됐다가 1922년 천도교 교인들 주도로 양 선생이 생전 계몽운동에 힘썼던 곳인 화순군 화순읍 영남리 야산으로 이장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산불 초동 진화 훈련
광주시 북구청 산불진화대원들이 9일 북구 운영동의 야산에서 등짐펌프와 장비를 이용해 산불 초동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 남구, 생태 탐방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 남구는 9일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생태 숲과 근린공원 등지에서 ‘2023 생태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단체를 비롯해 가족 및 모임 구성원 규모로 참여 가능하며 제석산과 분적산, 금당산, 제봉산, 월산 근린공원, 사직공원, 풀빛 근린

공원 등 7곳에서 참여할 수 있다. 또 참여 인원 10명 당 숲 해설사 1명이 배치돼 참가자 눈높이에 맞는 숲속 체험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남구청 6층 환경생태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전화(607-3613) 또는 팩스(607-3605)로 가능하다. /김다인 기자 kdi@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천지 휴게소 내 주유소 일시 폐쇄

13일~5월 11일 시설 교체 공사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천지 휴게소 내 주유소가 노후 시설 교체 공사로 일시 폐쇄된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오는 13일부터 서해안고속도로 함평천지 휴게소(목포 방향) 내 주

유소를 폐쇄하고 노후한 주유기를 개선하고 유류 탱크를 새로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오는 5월 11일까지 60일 동안 진행되며 이 기간 중 주유소 운영은 일시 중단된다. 해당 구간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고창 고인돌(목포방향)

주유소, 함평나비(광주방향) 주유소 등 다른 주유소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같은 기간 동안 휴게소와 수소 충전소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장기간 주유소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바란다”며 “공사 기간에는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에 충분히 주유를 하거나, 인근 주유소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 반영구적 사용가능
- ➔ 관리의 간소화
- ➔ 낮은 관리비
- ➔ 자연과의 동화
-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